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호 [루계 제25528호] 주제 106 (2017)년 1월 19일 (목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33군부대직속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33군부대직속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륙군상장 리영길동지 등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맞이하는 중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지휘성원들과 중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새해벽두부터 훈련혁명의 물결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중대군인들은 날에날마다 싸움준비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표준병법설계대로 꾸린 중대병영을 돌아보시였다.

훈훈하게 달해진 침실에 펼려져 온도를 가늠해보시고 난방보장정형에 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 것이 알린

대에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서 난방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군인들이 추운 겨울에도 뜨뜻한 병실에서 생활하며 건강한 몸으로 전투정지훈련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리발실을 비롯한 군무생활에 필요한 소들을 손색없이 잘 꾸려놓았고 특히 세목장의 물량크에 수질이 좋은 물이 가득차있는데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며 훈련 군인들이 마음껏 물을 썻으며 좋아할것이라고 기뻐하시였다.

정치사상교양지도원 교양실도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학상교양자료를 비롯한 사상교양수단들을 더 잘 갖추어 놓고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에 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참신하고 실속있게 벌여야 한다고, 병사들의 정치사상적 힘보다 더 강한 무기는 이 세상에 없으며 인민군대가 사상을 풀어줘야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사장의 조리데에 차려놓은 물고기와 고기를 비롯한 갖가지 음식감들과 콩창고에 그득하게 쌓아있는 콩을 보시고 살림살이를 깊이 살피면서 훈련장에서 주변환경이 대단히 좋다고, 이곳 중대로 오면서 산마다 나무들이 가득한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어 병영과 주둔지역의 산들을 수립화, 원림화, 관수원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은 군인생활개선이 자 싸움준비완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부업에 계속 큰 힘을 넣는 것과 함께 기초식 품을 비롯한 후방물자들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어 군인들의 식생활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고, 중대를 푸짐한 식탁과 포근한 잠자리가 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만드는 것은 꼭 그들의 전투적 사기를 높여주는 중요한 정치사업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휘성원들은 늘 중대에 내려가 병사들의 생활을 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며 훈련과 군무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군인들이 오직 훈련에만 전심전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을 칭한 수립속에 들어앉은 병영을 흔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주변환경이 대단히 좋다고, 이곳 중대로 오면서 산마다 나무들이 가득한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어 병영과 주둔지역의 산들을 수립화, 원림화, 관수원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중대의 군사대장을 돌아보시면서 쌔움준비와 훈련실래를 묘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대에서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여 군인들을 강의한 정신력과 완강한 뿐, 높은 전투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쇠소리가 쟁쟁 나는 일당백의 만능병사로 둔돈히 준비시키고 있으며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자나깨나 쌔움준비만을 생각하면서 무기, 전투기술기체의 경상적인 전투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초소와 진지를 난봉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가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대가 갖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여 군인들을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험난히 수행하는 다병종화된 쌔움군들로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군인들이 현대적인 전투기술기재들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적극 애용관리함에 대한 문제, 구분대주둔 지역을 절벽의 요새로 다지며 위장을 잘함에 대한 문제 등 쌔움준비완성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종대군인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원쑤들에 대한 서리발같은 증오심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을 절벽으로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종대군인들은 대체 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푹 풍 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조선인민군 제233군부대직속 구분대 군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혁명령도의 강행군길을 끝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시어 불굴의 전투정신과 결전의지를 가슴깊이 새겨주시고 백전백승의 방략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결사완수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민족의 강대한 힘과 드높은 통일의지를 총분출시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가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통로!

조국통일의 위황한 진로를 밝혀주고 온 거래를 통일에 국두쟁으로 부르는 위대한 호소가 삼천리강산에 뜨겁게 메아리치고 있다.

세 해의 첫 아침 철제 조선통로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면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겨례의 가슴마다에 통일에 대한 회망과 실심을 안겨주는 승리의 표대이며 거족적 통일대진군의 앞길을 밝히는 화蟆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 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신 철제 위인의 진정에 누구인들 심장의 피를 끌어내고 애국애족의 큰길을을 내밀지 않을수 있겠는가.

올해는 역사적인 7.4 광통성명발표

미혼다섯살과 10. 4선언발표 열들이 되는 해이다.

45년전 분별사상 처음으로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 단합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 정립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정양파 세울에서 울려 털 때 온 겨레는 그 얼마나 감격과 환희로 살피었던가.

사자적인 6. 15 광통선언과 더불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통일대장인 10. 4선언이 탄생하였을 때 삼천리강도에 메아리치던 겨례의 환호성은 온도로 퀸장을 정했다.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승리의 파포를 따라 전진호온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로새겨진 그 빛나는 자주와 소중한 성과를 우리는 정녕 역사의 주역으로 되새길 수 없다.

그날의 감각과 환희를 배우면서 하나까지 다시 한번 분출시켜 제2의 6. 15시대를 열어놓으려는 것은 철제 조선민족의 한결 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오늘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에 처해 있고 전쟁의 한파가 엄습하는 조선반도 정세는 절망이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새로운 각성을 하고 멀찌나 나선다면 빛지 못할 난관이 없고 광복할 할 장벽이 있을수 없다.

겨례의 통일에서는 충진하며 민족의 자주적립은 비탈바위로 강대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7. 4 광통성명발표 미혼다섯살과 10. 4선언발표 열들이 되는 올해 길세워인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뜨겁게 역박치는 조국통일의지를 달들이 자주통일

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확고한 결심과 열망을 암고 철제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위대한 대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주심을 간직하고 애국애족의 진정과 대변되는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자!

민족의 결집한 위인을 모시여 우리 대강이 일길에는 새 세기 자주통일의 대강이 친환경은 유일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빙방제통일이다.

절제위인께서 조선로통당 제7차대회에서 친환경 하신 주제적 통일로선과 방침은 통일의 일길을 밝히는 활동의 희망이며 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

통일강국의 빛나는 울자세 세계의 하늘 높이 밟아온 울려는 유일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빙방제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래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한 방제 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주제적 통일로선과 방침을 편집하는데 불멸의 비국을 가지고 통일을 앞당기는 서류를 있다.

대양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암고 모두다 절세위인의 통일대장실현에 한사랑같이 떨쳐나서자!

2.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남사이의 친환경 주제적 통일로선과 방침을 편집하는데 철학으로부터 민족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지하기 위한 것 없고 그 어떤 대국도 무리운 것 없는 강대한 민족으로 위용펼치고자!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친절한 요구이다.

과국에 친한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차치하고 그 누구도 민족앞에 지난 차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미 시행선고를 받은 바른해의 대결정책을 계속 고수해보려고 밤방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넘원에 악랄하게 도전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된 자격을 암고 자주통일의 새 대목을 힘차게 개척해나가자!

민족대 단합은 조국통일의 천지대본이다. 사상과 희념, 주의주장의 유타리를 넘어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가치를 하나로

제공해나갈 것이다.

6. 15시대에 넘치던 혁우의 정, 애국의 힘을 다시금 뜨겁게 불이며 민족대 단합의 거세한 대처에 이 땅에 성장하여 절충봉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빙방제통식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이며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이다.

북과 남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한치 앞도 내다볼줄 모르는 철령왕신자들의 경거망동이 조선반도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있다.

거족적인 만민, 반전투쟁으로 조선반도에 침략과 전쟁의 회근을 물어내고 삼천리강산을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평화의 보금자리로 만들자!

통일강국의 빛나는 울자세 세계의 하늘 높이 밟아온 울려는 유일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빙방제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래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

통일강국의 빛나는 울자세 세계의 하늘 높이 밟아온 울려는 유일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빙방제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

평화를 사랑하는 철제 조선민족은 북남사이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협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족적 성장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조선민족의 생활이며 누구나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알아오기 위한 두정에서 한물이 그대로 평화의 주인이다. 평화의 티임을 되어!

통족이 서로 서로 싸우지 않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티임을 되어!

세계의 평화를 알아오기 위한 두정에 티임을 되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친절한 요구이다.

과국에 친한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차치하고 그 누구도 민족앞에 지난 차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미 시행선고를 받은 바른해의 대결정책을 계속 고수해보려고 밤방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넘원에 악랄하게 도전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된 자격을 암고 자주통일의 새 대목을 힘차게 개척해나가자!

민족대 단합은 조국통일의 천지대본이다. 사상과 희념, 주의주장의 유타리를 넘어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가치를 하나로

제공해나갈 것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적 통일을 원하는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남사이의 혁우이며 혁우의 정신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빙방제통식의 도전을 짓누르자!

조국통일은 철제 조선민족의 전통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철제 조선민족이다.

</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

##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걸음을 힘차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이 총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지지하며 인민들을 잡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피주어야 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라산의 기준은 인민의 리익

동신군에서

70일 전투목표를 놓고 친령 되는 통신군 일군들의 협의회장의 분위기는 평생하였다. 명문선에 새로 콩크리트리를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것이다.

군에서 계획한 식료 공장개건 보수와 10여개의 대상건설도 숨이 한데 콩크리트리까지 건설하자니 그럴만도 하였다. 명문선을 끌어며 모여, 자제, 자금타선을 해보인 군기급인 일군들이 아무에도 안절 모양인 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때 군당책임일군의 목소리가 울렸다.

『자, 명문선에 나가 바람이나 쏘면서 미리 출발을 하시다.』

그리고는 먼저 땅문을 열고 나섰다. 일군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명문선에 놓인 돌다리가 있는

적동적인 오늘의 시대는 모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자유를 더욱 큼직히 내집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일군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풍운당원과 함께 원회와 송원군당위원회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는 자강도인 당 조직들의 드높은 열의를 느끼게 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

바로 그지요. 그때 자기 자식을 위한 일에 라산을 일세우는 부모를 본적이 있소?』

그때에 일군들은 대리건설을 끌어가면 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사실, 삶을 사람들도 최고의 운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개간한 은의원에 의자식전설마기와 청대적인 전자오락기재물을 비롯한 비품들을 마련해온 사실, 문화회관을 훌륭하게 일세우는 사실...

모든 일군들이 이런 판찰에서 달라붙으니 대중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져 대리건설은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었다.

『세기를 봄 보오.』

그가 가리키는 봄을 보니 아이들이 추운 날 업을 진 미끄러운 돌다리를 조심스레 건너고 있다.

『저 아이들이 누구의 자식들이요?』

군당책임일군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일군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꺼내어갔다.

『모두 봄을 보오.』

군당책임일군의 이 말에 일군들은 미리 기울어졌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비로소 책임일군의 말뜻을 이해해듯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 애들은… 우리 자식들이입니다.』

여전히 일군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3년전, 써는듯 한 7월의 무더위 속에서 영동읍을 헤매는 사람들은 있었다. 송원군당책임일군은 비록 한 군의 도시경영부문 일군들이었다.

『이제 그만 내려갑시다.』

『저 끝까지 미처 돌아봅시다.』

『물을 끌어온다.』

일장에서 성큼성큼 걸음을 내딛는 군당책임일군의 어깨 위에 힘차게 걸어온 일군들이 생생히 떠올랐다.

손수에 물통을 가득 싱고 강가로 나가는 주민들의 땀은 얼굴, 나머지 사장이 건강

여주는 사실들은 많다.

산증력을 험들며 6km의 도로를 닦아 200리길을 에둘아가면 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사실, 삶을 사람들도 최고의 운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개간한 은의원에 의자식전설마기와 청대적인 전자오락기재물을 비롯한 비품들을 마련해온 사실, 문화회관을 훌륭하게 일세우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라산의 기준을 넘고 일민의 리익과 편의에 두고 작전하는 이곳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안아온 사랑찬 결실이다.

이렇게 되어 명문선의 콩크리트대리건설분체가 만장일치로 결정되게 되었다.

모든 일군들이 이런 판찰에서 달라붙으니 대중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져 대리건설은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수지마산을 앞세우지 않는 일본새를 보

## 웃음꽃을 피우는 밀거름

송원군에서

곳에 더맡은 책임일군이 뒤따르는 일군들에게 달하였다.

『세기를 봄 보오.』

그가 가리키는 봄을 보니 아이들이 추운 날 업을 진 미끄러운 돌다리를 조심스레 건너고 있다.

『저 아이들이 누구의 자식들이요?』

군당책임일군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일군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꺼내어갔다.

『모두 봄을 보오.』

군당책임일군의 이 말에 일군들은 미리 기울어졌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비로소 책임일군의 말뜻을 이해해듯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 애들은… 우리 자식들이입니다.』

여전히 일군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3년전, 써는듯 한 7월의 무더위 속에서 영동읍을 헤매는 사람들은 있었다. 송원군당책임일군은 비록 한 군의 도시경영부문 일군들이었다.

『이제 그만 내려갑시다.』

『저 끝까지 미처 돌아봅시다.』

『물을 끌어온다.』

일장에서 성큼성큼 걸음을 내딛는 군당책임일군의 어깨 위에 힘차게 걸어온 일군들이 생생히 떠올랐다.

손수에 물통을 가득 싱고 강가로 나가는 주민들의 땀은 얼굴, 나머지 사장이 건강

여주는 사실들은 많다.

산증력을 험들며 6km의 도로를 닦아 200리길을 에둘아가면 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사실, 삶을 사람들도 최고의 운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개간한 은의원에 의자식전설마기와 청대적인 전자오락기재물을 비롯한 비품들을 마련해온 사실, 문화회관을 훌륭하게 일세우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라산의 기준을 넘고 일민의 리익과 편의에 두고 작전하는 이곳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안아온 사랑찬 결실이다.

이렇게 되어 명문선의 콩크리트대리건설분체가 만장일치로 결정되게 되었다.

모든 일군들이 이런 판찰에서 달라붙으니 대중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져 대리건설은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수지마산을 앞세우지 않는 일본새를 보

여주는 사실들은 많다.

산증력을 험들며 6km의 도로를 닦아 200리길을 에둘아가면 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사실, 삶을 사람들도 최고의 운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개간한 은의원에 의자식전설마기와 청대적인 전자오락기재물을 비롯한 비품들을 마련해온 사실, 문화회관을 훌륭하게 일세우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라산의 기준을 넘고 일민의 리익과 편의에 두고 작전하는 이곳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안아온 사랑찬 결실이다.

이렇게 되어 명문선의 콩크리트대리건설분체가 만장일치로 결정되게 되었다.

모든 일군들이 이런 판찰에서 달라붙으니 대중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져 대리건설은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수지마산을 앞세우지 않는 일본새를 보

여주는 사실들은 많다.

산증력을 험들며 6km의 도로를 닦아 200리길을 에둘아가면 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사실, 삶을 사람들도 최고의 운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개간한 은의원에 의자식전설마기와 청대적인 전자오락기재물을 비롯한 비품들을 마련해온 사실, 문화회관을 훌륭하게 일세우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라산의 기준을 넘고 일민의 리익과 편의에 두고 작전하는 이곳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안아온 사랑찬 결실이다.

이렇게 되어 명문선의 콩크리트대리건설분체가 만장일치로 결정되게 되었다.

모든 일군들이 이런 판찰에서 달라붙으니 대중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져 대리건설은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수지마산을 앞세우지 않는 일본새를 보

여주는 사실들은 많다.

산증력을 험들며 6km의 도로를 닦아 200리길을 에둘아가면 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사실, 삶을 사람들도 최고의 운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개간한 은의원에 의자식전설마기와 청대적인 전자오락기재물을 비롯한 비품들을 마련해온 사실, 문화회관을 훌륭하게 일세우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라산의 기준을 넘고 일민의 리익과 편의에 두고 작전하는 이곳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안아온 사랑찬 결실이다.

이렇게 되어 명문선의 콩크리트대리건설분체가 만장일치로 결정되게 되었다.

모든 일군들이 이런 판찰에서 달라붙으니 대중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져 대리건설은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수지마산을 앞세우지 않는 일본새를 보

여주는 사실들은 많다.

산증력을 험들며 6km의 도로를 닦아 200리길을 에둘아가면 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사실, 삶을 사람들도 최고의 운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개간한 은의원에 의자식전설마기와 청대적인 전자오락기재물을 비롯한 비품들을 마련해온 사실, 문화회관을 훌륭하게 일세우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라산의 기준을 넘고 일민의 리익과 편의에 두고 작전하는 이곳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안아온 사랑찬 결실이다.

이렇게 되어 명문선의 콩크리트대리건설분체가 만장일치로 결정되게 되었다.

모든 일군들이 이런 판찰에서 달라붙으니 대중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져 대리건설은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수지마산을 앞세우지 않는 일본새를 보

여주는 사실들은 많다.

산증력을 험들며 6km의 도로를 닦아 200리길을 에둘아가면 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사실, 삶을 사람들도 최고의 운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개간한 은의원에 의자식전설마기와 청대적인 전자오락기재물을 비롯한 비품들을 마련해온 사실, 문화회관을 훌륭하게 일세우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라산의 기준을 넘고 일민의 리익과 편의에 두고 작전하는 이곳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안아온 사랑찬 결실이다.

이렇게 되어 명문선의 콩크리트대리건설분체가 만장일치로 결정되게 되었다.

모든 일군들이 이런 판찰에서 달라붙으니 대중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져 대리건설은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수지마산을 앞세우지 않는 일본새를 보

여주는 사실들은 많다.

산증력을 험들며 6km의 도로를 닦아 200리길을 에둘아가면 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사실, 삶을 사람들도 최고의 운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개간한 은의원에 의자식전설마기와 청대적인 전자오락기재물을 비롯한 비품들을 마련해온 사실, 문화회관을 훌륭하게 일세우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라산의 기준을 넘고 일민의 리익과 편의에 두고 작전하는 이곳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안아온 사랑찬 결실이다.

이렇게 되어 명문선의 콩크리트대리건설분체가 만장일치로 결정되게 되었다.

모든 일군들이 이런 판찰에서 달라붙으니 대중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져 대리건설은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수지마산을 앞세우지 않는 일본새를 보

여주는 사실들은 많다.

산증력을 험들며 6km의 도로를 닦아 200리길을 에둘아가면 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사실, 삶을 사람들도 최고의 운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개간한 은의원에 의자식전설마기와 청대적인 전자오락기재물을 비롯한 비품들을 마련해온 사실, 문화회관을 훌륭하게 일세우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라산의 기준을 넘고 일민의 리익과 편의에 두고 작전하는 이곳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안아온 사랑찬 결실이다.

이렇게 되어 명문선의 콩크리트대리건설분체가 만장일치로 결정되게 되었다.

모든 일군들이 이런 판찰에서 달라붙으니 대중의 열의도 비상히 높아져 대리건설은 짧은 기간에 완공되게 되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수지마산을 앞세우지 않는 일본새를 보

여주는 사실들은 많다.

산증력을 험들며 6km의 도로를 닦아 200리길을 에둘아가면 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사실, 삶을 사람들도 최고의 운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개간한





